공익봉사장 이정일

산업근로장 김일수

애향효열장 박순덕

남원 인월면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남원시 인월면(면장 황도연)은 지난달 31일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면민의 귀감이 되는 분에게 수여하는 면민의 장 수상자 3명을 선정, 오는 6월 8일 제28회 인월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들에게 인월면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공익봉사장에 이정일씨가 수상, 이 씨는 지리산 로터리클럽, 인월면 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근로장에는 인월요업 김일수 씨가 수상, 김씨는 면 향토기업이자 선대로부터 이어온 천연 무공해 질그릇·옹기 제작 기술 구현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확장을 위해 글로벌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애향효열장에는 박순덕씨가 수상, 박씨는 농사일 등 바쁜 와중에도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28년째 지극 정성으로 모셔온 효행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자원봉사자 심폐소생술 교육

무주소방서는 무주산골영화제 자원봉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영화제 기간 중 심정지 등 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높이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중요성 및 심폐소생술 사례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의 원리와 사용법 등이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은 행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교육

남원소방서는 지난 4일, 관내 주간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골든타임 4분의 중요성과 심폐소생술법, 자동제세동기의 필요성과 사용법 등의 이론교육과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상황을 가정하고 마네킨,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발생하는 기도폐쇄 사고시 대처하는 하임리히법도 진행, 생활 속 크고 작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장우석 학부생, 세계적 저널 논문 게재

제1저자로 게재… 복합재료 내열 특성 향상 발견 규명

전북대학교 장우석 학부생(유기소재섬유공학과 4년, 지도교수 김성륜)이 최근 복합재료의 내열 향상을 밝힌 연구로 SCI급 저널인 'Polymer Composites'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장우석 학부생의 논문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세그러게이트 네트워크를 도입해 폴리프로필렌 복합재료의 열적 특성 향상을 발견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김기훈 석박통합과정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네트워크가 폴리머 입자 사이에 선택적으로 위치해 열전도 경로를 형성하고, 코어-쉘 구조를 통해 복합재의 열적 특성의 향상을 규명했다.

이러한 폴리프로필렌 복합재료의 내열성 향상은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자동차 엔진, 전자기기 내부 부품, 고온 배관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장우석 학부생은 "학부생으로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낼 수 있어 기쁘고, 지도교수님과 도움을 준 선배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학부 연구생으로 쌓은 경험들을 토대로 석사과정에 입학해 학문적 탐구와 연구 역량을 강화해 우수한 연구자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김성륜 지도교수는 "미래의 연구 동량이 될 학부생들에게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주체적인 연구를 통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호국보훈의 달 기념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5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가족 권익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보훈단체장을 군수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전춘성 군수와 관내 6개 보훈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보훈단체 건의사항 청취와 함께 다양한 보훈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찬 월남전참전자회 지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훈 가족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진안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과 소통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가족들이 더욱 존경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장 높은 금액의 보훈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참전유공자 본인 15만원, 기타 13만원)하고 있으며, 보훈 정신 확산을 위해 초등학생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시 산외면 복지기동대, 집수리 봉사 펼쳐

정읍시 산외면 복지기동대(대장 홍석철)는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 대상 2가구는 거동이 불편한 주거 취약가구 한 세대와 기초 생활 수급 독거 어르신 한세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거주에 위험이 따랐다.

이날 대원들은 콘크리트 가옥의 외벽을 페인트를 새롭게 칠하고, 화재로 인해 훼손된 집안 내 도배와 장판, TV 등을 교체·설치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홍석철 복지기동대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미력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곽창원 산외면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고 힘써주시는 복지기동대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수경찰서, 제69회 현충일 추념 행사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추념 행사를 지난 5일 장수읍 남산 충혼탑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추념식에는 김홍훈 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선언, 국민의례, 헌화, 분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김홍훈 서장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관이 있었기에 누릴 수 있었다"면서 "장수경찰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숭고한 헌신을 다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고창경찰서, 제69회 현충일 맞아 경찰충혼비 참배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5일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에 있는 경찰충혼탑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대간첩작전 중 순직한 경찰관의 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추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고창경찰은 국가 및 공직관을 확립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며 모두가 협력하여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한도연 경찰서장은 "이번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며, "선배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